

합종연횡 봇물 예고...경선 최대변수로

■ 모바일트랩 빠진 민주경선 재설계하나

선거인단 명부 놓고 모종의 거래 가능성 반영비중 축소 여론조사 도입 방안 검토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호남지역 공천을 위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초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보자 간 합종연횡이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선거 구별로 2~6명 후보가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0~29일에는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심혈을 기울여 후보별로 작게는 1000여명에서 많게는 1만여명까지의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선대상에서 제외되는 후보는 1~4명이 된다. 이들 탈락후보들에게 자신들이 공

들여 모은 선거인단의 명부는 무용지물이 된 반면 경선에 오른 후보들에게는 이 명부가 경선 승리의 관건이 된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민주당은 공모한 선거인단 중 현직 장 선거인단 명부만 공개하고 70%에 이르는 모바일 선거인단 명부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선에 오른 후보들이 탈락 후보들과 합종연횡을 시도할 수 있는 이유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이미 사전에 컷오프 이후 협력을 약속한 상황이다. 특히 광주 북갑과 광주 광산갑 등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항하는 후보들이 컷오프를 후보 단일화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 지역 외에도 컷오프 후에는 후보들끼리 합종연횡을 논의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세론에 이끌려 지지도가 앞선 후보 쪽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 약세 후보와 손을 잡고 역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는 명단을 놓고 모종의 거래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탈락후보들이 모은 선거인단이 그 후보의 입김에 따라 표심을 정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인단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아는 것만도 선거운동을 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된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상대 후보보다 많은 선거인단 정보를 가짐으로써 효율적인 경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2인을 기준으로 경선후보가 결정되면 그동안 여론조사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경선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면 기존의

판세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 등과 관련, 후폭풍 차단에 나서면서 경선 방식을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는 그동안 관행이던 금권·관권·동원 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출방식"이라고 모바일투표 강행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향후 경선 과정에서 동원 가능성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선 방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투표의 반영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고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노·486 '약진'...舊민주계 '침몰'

이대 출신 31%...전략공천 8명 중 절반은 법조인

민주통합 3차례 공천 분석해보니

민주통합당 호남지역 공천자 명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3번에 거친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 친노그룹과 486을 세력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과 이화여대 출신과 법조계 인사들의 두각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현역 의원은 탈락이 전무했다.

지난 2일 두 명의 전략공천자를 포함 4일 현재까지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된 곳은 전체 지역구 245곳 중 107곳(단수후보 99명+전략공천 8명)이다. 또 48곳에서는 경선대진표가 결정되는 등 155곳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한명숙(이화여대·친노) 대표가 당 지도부를 대표하고 이미경(이화여대) 총선거기획단장이 이화여대 또는 대학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제외된 지방대학교 출신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전 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철 변호사,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대 동문회(?)=이날까지 확정된 16명 여자 공천자 중 5명(31%)이 이화여대 또는 대학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제외된 지방대학교 출신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전 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철 변호사,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소수에 불과했다.

그 결과, 정치권에서는 '노이사' 공

천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노 그룹, 이화여대 출신, 486을 의미한다. 반면 구(舊)민주계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친노 부상 '도로 열리우리당?'=단수후보 99명 중 70% 이상이 참여정부 인사 및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로 파악됐다. 또 이들 대다수가 486 출신이었다. 나머지 18대 국회의원들이 많고 새롭게 발굴된 인재야 안귀옥 변호사, 이 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철 변호사,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대 동문회(?)=이날까지 확정된 16명 여자 공천자 중 5명(31%)이 이화여대 또는 대학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제외된 지방대학교 출신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전 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철 변호사,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대 동문회(?)=이날까지 확정된 16명 여자 공천자 중 5명(31%)이 이화여대 또는 대학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제외된 지방대학교 출신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전 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철 변호사,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소수에 불과했다.

가 각각 전략공천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영일대 전략공천이 확실시되는 판사 출신 임지아 변호사와 전 에스오일 사무인 이인주 변호사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법조당'이란 비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단수후보 99명 중 16명(16%)도 법조인인 것이 확인됐다.

이대 동문회(?)=이날까지 확정된 16명 여자 공천자 중 5명(31%)이 이화여대 또는 대학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제외된 지방대학교 출신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전 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철 변호사,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소수에 불과했다.

정권환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심 위에서는 명단에 빠져나온 최고위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평 전 의원은 친노계 중심 당운영에 반발하며 공천심사 재심위원직을 사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공천 후유증 심각

탈락 후보 농성...당내 갈등 고조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천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천 작업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당내 반발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서울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는 공천결과에 반발하는 예비후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공천에서 떨어진 예비후보로 구성된 '불공정 공천타파 민주연대'를 비롯한 공천에서 떨어진 예비후보들은 계파공천 타파와 국민경선 실시를, '민주당 전략지역 전국 예비후보 모임'은 전략공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한명숙 대표 나와라", "임종석 사무총장 나와라"라고 외치며 당사를 경호하고 있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서울 양천 갑의 권보근, 강원 춘천시의 허영 후보 등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재심신청도 이어졌다. 경기 양평·가평·여주군 공천 신청자

들은 민주당이 이날 조민형 변호사를 이 지역구에 전략공천 한 데 반발해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탈락 후 무소속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이강철 참여정부 당시 정무특보가 당사에서 정치자 급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의 총선 후보 및 총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동득 최고위원도 공천 심사에 반발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당내에서는 그의 최고위원직 사퇴설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 을에서 정동영 상임고문과 경합중인 전현희 의원은 "당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경선시 여성 가산점 15% 등을 포기하겠다"며 "정 고문도 대선주자의 예우를 버리고 정당당파하게 경선하자"고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천 후유증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 영광·합평·장성+담양 경선구도 요동

뒤늦게 합류 이개호 후보 "불공정하다"

담양·곡성·구례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담양이 편입돼 새롭게 확정된 영광·합평·장성·담양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경선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담양·곡성·구례 선거구에 뛰어들어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영광·합평·장성·담양 선거구로 가세하면서 경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다른 후보에 비해 경선에 뒤늦게 뛰어들어 전 부지사는 현 경선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존 후보들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세로 경선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개호 후보는 "담양·합평·영광·장성 4개군이 포함된 지역구 선거는 100m 경주에 비유하면 이미 75m를

달린 후보들에게 이제 막 25m를 달린 후보가 맞서는 편과 경기와 다를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마감 이틀 전인 27일 새롭게 선거구가 확정된 상황에서 영

광·합평·장성 선거인단 모집을 하기에는 시간 적으로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심사 기준으로 출마 후보들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후보를 중앙당이 선출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선 절차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대1 경선을 치르는 대다수 선거구와 달리 영광·합평·장성·담양 선거구는 이낙연, 이석형, 이개호 후보 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총선 입후보안내 설명회

전남 선관위, 22~23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대상 설명회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후보자 등록 신청에 따라 이번 총선에 참여할 정당 및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5일 목요일 선관위 등 전남지역 10곳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선거비용 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선관위 단속방법 등 기타 정당·후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단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적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단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사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찰나무 뿌리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찰나무 뿌리 유근피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종-4738호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 업 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육신축공사		
사 업 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 지 면 적	2,411.20㎡(729.39평)		
용 도 지 역	일반미관지구, 초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 폐 율	59.53%(법정: 60%)	용 적 율	478.73%(법정: 480%)
규 모	지하0층 지상9층	최 고 높 이	55.50m
건 축 면 적	1,435.47㎡(434.23평)	건 축 연 면 적	11,543.18㎡(3,491.81평)
주 차 대 수	80대(법정 72대):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부설주차장: 대지면적 201.3평, 면적 1,233.4평, 지상3층 철골조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1층~7층까지 설치		
용 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회화전시 및 업무시설		

층 별	면 적	평	총 고	용 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 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평가)	14,000,000,000원
매 매 예 정 가 격	12,000,000,000원
현 공 정 율	약 85% 진행
적 용 가 능 용 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워터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교회시설 병행 등 최대층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공,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